

2강 심경 변화 파악

Gateway 자신이 자라난 집을 찾아낸 Sophie
 "Where could it be?" Sophie asked herself.
 It had been more than ten years since she had last
 visited the area where she had grown up.
 The village had changed a lot over time.
 Uncertain, she awkwardly looked around at her
 surroundings.
 She walked the narrow streets of the village, unsure
 about which way to go.
 Suddenly, Sophie saw a familiar sight.
 "Yes, this must be it," she thought.
 In front of her was a wall with flowers painted on it.
 Although the colors were now faded, the familiar
 shapes on the wall were the same ones she had
 painted with her father as a child.
 Sophie nodded, smiled brightly, and walked toward
 the gate.
 At last, she had finally found the house she had
 grown up in.

1 비자 신청 과정에서 겪은 기대와 좌절

It was the day I had been preparing for.
 I drove for an hour and a half to apply for a visa.
 My heart was racing, but I felt ready.
 That same day, I helped three people who didn't
 know English by translating for the immigration
 officer.
 Two of them were lucky to get their visas.
 Then I heard my name called.
 Believing things were going smoothly, I made my
 way to the counter.
 I showed my documents and property papers to
 prove that I would return home after visiting my
 children.
 Unfortunately, the officer, who had smiled when I
 was helping her, suddenly turned serious.
 She ignored my papers and put a red stamp on my
 application.
 I didn't have a chance to say a word.
 I felt as if a heavy rock was pressing down on my
 mind.
 I didn't expect to hear her words of rejection.
 I felt dizzy, and my eyes were full of tears.
 I couldn't see anything at that moment.

"어디 있을까?" 하고 Sophie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가 자랐던 지역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확신이 서지 않아, Sophie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갑자기, Sophie의 눈에 익숙한 광경이 들어왔다.
 "맞아, 여기가 분명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 앞에는 꽃이 그려진 벽이 있었다.
 지금은 색이 바랬지만, 그 벽 위의 친숙한 모양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바로
 그것이었다.
 Sophie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하게 미소 짓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자랐던 집을 드디어 찾아냈다.

그날은 내가 준비해 온 날이었다.
 나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한 시간 반 동안 운전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같은 날 나는 영어를 모르는 세 사람을 도와 이민국
 직원을 위해 통역해 주었다.
 그들 중 두 명은 운 좋게 비자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창구로
 향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방문한 뒤 귀국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와 재산 관련 서류를 보여주었다.
 불행하게도, 내가 도와줄 때 미소를 짓던 그 직원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 서류를 무시하고 내 신청서에 빨간 스탬프를
 찍었다.
 나는 한마디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나는 마치 무거운 바위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거절의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예상치
 않았다.
 나는 어지러웠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2 과한 자신감으로 일행에 짐이 된 산행

After a few nights, we ventured out on a hike to 16,000 feet.

The group members were all experienced, so I couldn't understand why they were climbing so slowly — what I thought was a ridiculous pace. Having trained hard for this, I was in the best shape of my life.

And, being the rookie, I wanted to prove myself to the group.

Why not show off my superior conditioning?

So up front I went.

Then, as we approached 16,000 feet, I suddenly began to feel dizzy.

Not long after, I was staggering.

The group had to take my pack.

In a matter of minutes, I became a basket case, needing assistance just to walk.

On the way down to the hut, I could barely keep in a straight line because of the nausea, headache, and dizziness.

Now all I felt was guilt for becoming a burden to the group.

I wished I hadn't pushed myself so hard.

며칠 밤을 보낸 후 우리는 (해발) 16,000피트까지 가는 산행에 과감히 나섰다.

일행 구성원들은 모두 경험이 많았으므로 나는 왜 그렇게 천천히 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속도였다.

이 등반을 위해 열심히 훈련했기에,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몸 상태였다.

그리고 신참자였던 나는 일행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의 우월한 몸 상태를 과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앞장서서 출발했다.

그런데 16,000피트에 접근했을 때, 나는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비틀거리고 있었다.

일행이 내 배낭을 챙겨야 했다.

몇 분 만에 나는 완전 무능력자가 되어 걷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는 산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메스꺼움과 두통, 현기증 때문에 거의 똑바로 걸지도 못했다.

이제 내가 느끼는 것이라곤 일행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뿐이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군인들을 피해 숨는 Francis와 Ellen

Francis Pohan sat at the organ in his Borneo home, a smile on his face as the hymn he had practiced for weeks flowed smoothly under his fingers.

The melody blended with the soft sounds of the jungle, filling him with happiness.

The organ, his most precious possession, was a source of comfort and joy, especially in these uncertain times.

But his peace was interrupted by the distant roar of engines breaking the calm.

Soldiers appeared on the jungle road, their boots loud on the dirt as they approached, weapons hanging loosely over their shoulders.

Francis' heart raced; it was wartime, and soldiers often took what they wanted.

Whispering urgently to his sister, Ellen, he led her to hide behind a tall tree, its thick trunk shielding them.

Peeking out, Francis stepped outside carefully and looked at the soldiers walking toward their home.

Their loud voices and heavy footsteps filled the quiet jungle.

His mind raced with prayers, hoping they would remain unseen.

Francis Pohan은 Borneo 자택의 오르간 앞에 앉아 자신이 몇 주 동안 연습해 온 찬송가가 손가락 아래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자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 선율은 정글의 부드러운 소리와 섞여 그를 행복으로 가득 채웠다.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오르간은 특히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고요함을 깨는 멀리서 나는 엔진의 굉음으로 그의 평화는 중단되었다.

군인들이 정글 도로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군화는 흙바닥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고, 무기는 그들의 어깨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Francis의 심장이 요동쳤는데, 전쟁 중이었고, 군인들은 자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동생 Ellen에게 다급하게 속삭이면서 키 큰 나무 뒤에 숨도록 그녀를 이끌었는데, 그것의 굵은 몸통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밖을 엿보며 Francis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집을 향해 걸어오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와 육중한 발걸음이 조용한 밀림을 가득 채웠다.

자신들이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며, Francis의 마음은 기도하며 요동쳤다.

4 지친 Vera의 저녁

Vera couldn't wait for her car to get fixed, but that was going to require longer than initially expected. Unfortunately, that meant relying on the bus for her commute.

To add to the cruel irony, it hadn't stopped raining for the past three days.

It was already past 7 PM when she stepped off the bus, cold and soaked to the bone, having left her umbrella at the gym.

Her place was just one block down the street, but it felt like ten miles in this weather.

Her legs moved on their own, and suddenly, the Cups & Blossoms' bell was ringing above her head.

The warm, floral scent wrapped around her like a blanket, but it was another kind of welcome that surprised her — a smile from the café owner, soft and unassuming.

She was also polite enough not to ask why Vera looked so tired, which was appreciated.

Vera now seemed to realize what she had truly needed.

Just a friendly face to ease the weight she carried.

Vera는 자신의 차가 수리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불행히도, 그것은 그녀가 통근을 위해 버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가혹한 알궂음에 더해, 지난 3일 동안 비가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내렸다.

그녀가 버스에서 내려, 우산을 체육관에 두고 와서 추위에 떨며 뺨속까지 흠뻑 젖어 있을 때 이미 오후 7시가 지났다.

그녀의 집은 길 아래 단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 날씨에는 10마일이나 되는 거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다리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는데, 갑자기 그녀의 머리 위에서 Cups & Blossoms의 종이가 울리고 있었다.

따뜻한 꽃의 향기가 담요처럼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또 다른 종류의 환영이었는데, 그것은 카페 주인의 부드럽고 겸손한 미소였다.

그녀는 또한 Vera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묻지 않을 만큼 정중했는데, 고맙게 여겨졌다.

Vera는 이제 그녀가 무엇을 진정 필요로 했는지를 깨달은 것 같았다.

그녀가 짊어진 무게를 덜어 줄 그저 다정한 얼굴이었다.